

걸프 부호들 돈자랑에 '치타' 멸종 위기

달리기의 명수 치타가 동아프리카의 미승인 독립국 소말릴란드의 허술한 국경을 틈타 걸프 국가 부호들에게 애완용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지난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CNN 방송은 최근 소말릴란드를 통해 매년 밀거래되는 새끼 치타는 300여마리 정도로, 이 지역 내 서식하는 전체 성체·성장기 치타 개체 수를 모두 합친 수에 맞먹는 규모라고 전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몇 년 안에 치타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치타는 주요 서식지인 아프리카에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현재 전세계에 7,500마리 정도만 남은 상태다. 이 가운데 1천여마리 정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국가 부호들이 개인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타를 애완용으로 사들인 데 따른 것이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야생동물 밀거래와 개인적 소유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단속이 느슨한 탓에 주로 온라인을 통해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 대상은



주로 생후 2~3개월짜리 새끼 치타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2만5천 사우디리얄(약 7,800 달러)부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된 새끼 치타들은 비좁은 나무상자 등에 담겨 소말릴란드 국경을 통과한 뒤, 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타는 이송 과정에서 4분의 3가량이 죽고, 운 좋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1~2년 안에 목숨을 잃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활동반경이 넓은 치타는 우리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페루 유적지에서 제물로 바쳐진 어린이 유해 대량 발굴

페루의 옛 치무 문명 유적지에서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어린이들의 유해 227구가 발굴됐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해가 발굴된 것은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700km가량 떨어진 해변 관광도시 우안차코의 유적지다. 지난해부터 발굴 작업을 진행해온 고고학자 페렌 카스티요는 "제물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유해 중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규모"라며 "아직 남은 유해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의 연령은 4세에서 14세까지로, 지금의 엘니뇨 현상과 비슷한 이상기후를 막기 위한 의식에서 치무 문명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카스티요는 설명했다.

유해는 바다를 향해 묻혀 있었고, 일부 유해는 여전히 피부와 머리카락 일부도 남아 있었다.

치무 문명은 오늘날 페루 트루히요 지역 일대에서 10



세기에 출현한 문명으로 13~15세기 전성기를 이룬 뒤 1475년 잉카 문명에 정복됐다. 태양을 숭배하는 잉카 문명과 달리 치무 문명은 달의 신을 숭배했으며, 신들을 위한 의식에서 어린이와 동물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에도 인근 바다 절벽에서 어린이 140여 명과 라마 200여 마리의 유해가 발굴된 바 있다.

"미국-탈레반 평화협정 임박"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반정부 무장세력 탈레반의 평화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뉴스1'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탈레반 측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도 협상이 계속된다. 거의 합의에 다다랐다"며 "우리는 이슬람 교도와 자유를 추구하는 국가에 좋은 소식을 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미국 측 협상대표인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간 평화회담 특사가 협정 체결을 앞두고 아프간 정부에 협상 합의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해 양측이 향후 14~24개월 일정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 18년간 이어온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2001년 시작된 아프간전은 미국이 사상 최장기로 치루고 있는 전쟁이다.

양측은 지난주부터 카타르 도하 제9차 평화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아프간에서 미군 병력을 일부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신들은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현 1만5,000명 규모인 아프간 주둔 병력을 절반 가까이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8천600명으로 줄이겠지만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미군이 잔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